

- **주요 뉴스:** 미국 소비 및 물가지표, 경기둔화 시사. 연준 인사들은 통화긴축 의지 재확인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주요 정책금리는 여름에 정점 도달 예상
 - IMF 부총재, 중국 경기회복은 2/4분기부터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
 - 일본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현행 수익률곡선제어(YCC) 지속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성장둔화 및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보합[+0.01%], 금리 하락[-1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1주 만에 최저 수준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둔화 가능성과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상충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6%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 부각되며 4개월래 최저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7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36.2원, -1.2원) 약보합, 한국 CDS 보합

주요지수					주요지수				
		1/18일	1/17일	전일대비			1/18일	1/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28.9	3,991.0	-1.56%	국채금리 10y	미국	3.37%	3.55%	-18bp
	유럽	457.53	456.46	0.23%		독일	2.02%	2.09%	-7bp
	중국	3,224.4	3,224.2	0.00%		영국	3.31%	3.32%	-1bp
	일본	26,791	26,139	2.50%	CDS 5y	한국	42bp	42bp	0bp
	한국	2,368.3	2,379.4	-0.47%		중국	52bp	52bp	0bp
환율	달러지수	102.41	102.39	0.01%	위험지표	EMBI+	-	371	-
	유로화	1.0794	1.0788	0.06%		VIX	20.34	19.36	5.06%
	엔화	128.90	128.12	-0.61%		WTI유	79.48	80.18	-0.87%
	위안화	6.7578	6.7719	0.21%	원자재	구리	422.5	422.3	0.04%
	원화	1,237.4	1,238.7	0.11%		금	1,904.1	1,908.7	-0.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소비 및 물가지표, 경기둔화 시사. 연준 인사들은 통화긴축 의지 재확인

- '22년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1% 줄어 12개월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 등의 판매가 특히 부진. 작년 말 연휴 기간 판매 또한 전년동기비 5.3% 증가했으나 예상치(6.0%~8.0%) 하회
- '22년 12월 생산자물가(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하락(각각 7.3%→6.2%, 0.2%→-0.5%)했고, 근원 PPI 역시 같은 결과를 도출(각각 6.2%→5.5%, 0.2%→0.1%). 이는 식품 및 연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 개선에 따른 제조업 제품의 수급 불균형 완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
- 소비자들이 지출에 점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금년 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LPL Financial의 Jeffrey Roach). 시장의 주된 관심이 물가불안에서 경기회복 수준으로 이동(BTIG의 Jonathan Krinsky). Citigroup은 2월 FOMC의 금리인상 폭 전망을 하향(0.50%p→0.25%p)
- 하지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매파적 시각을 유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신속하게 5.0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도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하며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강조
-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5.00%~5.25% 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발언. 다만 최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향후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언급
- 한편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및 노동력 부족이 완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역시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 거시경제 및 금융 관련 의사소통 강화를 약속

- 엘런 장관과 류허 부총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교환에 나설 방침이며 경기침체 회피, 부채, 에너지 및 식품 안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발표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주요 정책금리는 여름에 정점 도달 예상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여름에 정책금리가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한편 ECB 라가르드 총재의 0.50%p 인상 지속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며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인상 및 고금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발언. 최근 시장에서는 예금금리(현재 2.0%)가 7월 3.2%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

■ 영국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영란은행의 통화긴축은 지속 예상

-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11월 대비 떨어졌고(10.7%→10.5%), 이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하지만 식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의 상승률(16.8%)이 여전히 높아 영란은행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못할 전망(HSBC의 Liz Martins)

■ IMF 부총재, 중국 경기회복은 2/4분기부터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

- 고피나스 부총재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및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

■ 일본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현행 수익률곡선제어(YCC) 지속할 방침

-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단기금리 -0.1%, YCC(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0.5%~+0.5%) 유지 등을 결정. 구로다 총재는 이번 결과가 경제활동 촉진, 적정 수준의 물가 유지 및 임금상승 유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23 및 '24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각각 2.0%→1.9%, 1.5%→1.1%).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각각 보합 및 상향(각각 1.6%→1.6%, 1.6%→1.8%)
- 일본은행이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발신(Totan Research). 아직 수익률곡선이 안정적이지만 만일 YCC 관련 조정이 재차 이루어지면 YCC 유지는 어려울 전망(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 미국 1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일본 '22년 12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시장은 연준보다 비관적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is more pessimistic about the prospect of recession)

-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 및 고용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그 결과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위원들은 전혀 없는 상황. 파월 의장 역시 경기연착륙 가능성을 제시
- 반면 시카고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학자 85%는 금년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경기침체 선언을 예상하는 등 경기전망에 있어 연준 보다 부정적. Moody's는 정체된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슬로세션(slowcession)'을 전망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자기실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의 상충되는 경제지표, 채권 전문가의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블룸버그

(Even the Masters of the Universe Are Stumped)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의 80%가 미국 국채에 중립 의견. 채권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E Index는 122.3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2배 수준. 이는 모든 것을 안다고 여겨지는 채권 전문가들도 경제 전망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
- 이러한 현상은 상반된 경제지표 때문. 일례로 작년 12월 소매매출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월 대비 낮은 수준. 반면 최근 주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는 '15년 이후 최대이며, 월별 주택건설 심리지수도 '10년대 최고치. 중국 경제활동 재개 역시 글로벌 물가 상승(상품가격 상승) 혹은 하락(공급망 차질 개선)을 유도할 것인지 불확실

■ 미-중 대립, 글로벌 양극화로 동맹국들의 딜레마 심화 - Financial Times

(US-China relations pursue an ominous path)

- 러시아가 유럽의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화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서방의 높은 공급망 의존도가 중국의 외교 안보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미국 정계에 팽배. 이는 탈중국화가 미국의 장기적 정책 기조로 고착되었음을 의미
- 관건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적 경제 양극화 흐름에 우방국들이 얼마나 동조할 것인지 여부. 중국과 상호 의존도가 높은 일부 미국 우방국들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부메랑으로 작용
- 중국 중심 공급망이 주변 우방국으로 이전(friendshoring)되고 있으나 아직 불충분한 상황. 글로벌 양극화 대응을 위한 주변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은 장기간 지속 예상

■ 연준의 통화정책, 기후변화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Fight Inflation, Not Climate Change)

- 파월 의장은 통화당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 연준이 '22년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이 늦은 점은 오류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부족한 국가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
- 이러한 가운데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후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연준의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편. 연준의 독립성은 여타 정책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유지해야할 과제

■ 미국 소매판매, 저축감소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 고려 시 감소세 지속 예상 - 블룸버그

(Retail Sales Drop Could Be More Than a Blip)

■ 차기 일본은행 총재, 시장 신뢰 회복 및 일관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 - Financial Times

(The Bank of Japan's policy predicament)

■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외환 리스크 등으로 장기 효과에 의구심 - Financial Times

(It's the currency, stupi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